

< 콩쥐팥쥐 >



옛날 어느 마을에 콩쥐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. 콩쥐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편찮으신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. 어머니가 없었지만 콩쥐는 깊은 효심으로 아버지를 열심히 모셨습니다.

아버지: 콩쥐 네가 어미도 없이 고생이 많구나...

콩쥐: 아니에요 아버지... 저는 괜찮아요... 어서 방으로 들어가 진지 드세요.

아버지: 그러자꾸나.. 너도 어서 들어와 같이 먹거라.

콩쥐: 아버지 많이 드세요. 그래야 저와 오래오래 사시죠..

그러던 어느날, 콩쥐의 아버지는 어머니 없이 홀로 고생하는 콩쥐가 안타까워 배씨라는 과부를 들였습니다. 하지만 콩쥐의 새 어머니에게는 팥쥐라는 딸이 있었습니다. 어쩔수 없이 콩쥐는 새 어머니와 함께 팥쥐도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. 착하고 마음씨 고운 콩쥐에 반해서 팥쥐는 욕심이 많고 자신 밖에 모르는 심술쟁이였습니다. 새 어머니는 콩쥐의 아버지가 없을 때 콩쥐에게 더욱 더 힘든 일을 시키며 심술을 부렸습니다.

새 어머니: 아니, 콩쥐 콩쥐 너 도대체 어디 있는 게냐??

콩쥐: 네 어머니, 부르셨어요? 뭐 시키실 일이라도 있으세요?

팠쥐: 시킬 일이 있으니까 불렀지! 널 왜 부르겠어?? 흥!

새 어머니: 나는 지금 팠쥐와 시장으로 장을 보러 갈 것이니, 너는 밭에 가서 밭을 메고 오너라.

콩쥐: 그 큰 밭에 저 혼자서요....?

새 어머니: 왜?! 그것도 힘들다는 것인가야? 잔소리 말고 끝내놓거라.

콩쥐: 네... 어머니...

하루도 빠짐없이, 새 어머니와 팠쥐는 콩쥐에게 가혹한 일을 시키면서 자기들은 시장에 가거나 마실을 다니는 등등 콩쥐에게 나날이 힘든 일이 지속되었습니다. 하루는 새 어머니가 콩쥐에게 또 다른 일을 시키고 있었습니다.

콩쥐: 어머니, 어디 가세요?

새 어머니: 그래, 내 지금 팠쥐와 장에 좀 가봐야 할 듯 싶구나.

팠쥐: 어머니가 새로운 치마 저고리를 사주신다고 해서 말야. 후후후

콩쥐: 그러면 저도 따라가면 안 될까요? 저도 장에 나가본 지 오래되었어요, 어머니.

새 어머니: 너는 다음에 가거라. 집 안에 할 일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장에 가다니?! 흥!

콩쥐: 그래도... 어머니...

새 어머니: 너는 옆집 김씨네서 옷감을 가져다가 바느질을 해 놓고 있거라. 듣고 있는게냐?

콩쥐: 네... 어머니... 그렇게 할게요...

새 어머니의 어떠한 말씀에도 콩쥐는 그저 따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, 마을에 원님의 생일잔치가 열린다는 소문이 퍼져 갔습니다. 이 소식을 들은 계모와 팔쥐 모녀는 원님의 생일잔치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. 콩쥐 역시 그 소식을 듣고 새 어머니에게 함께 가게 해달라고 부탁하려던 참 이었습니다.

콩쥐: 어머니, 오늘 원님의 생일잔치가 있다죠?

새 어머니: 그건 네가 왜 묻는게냐?

팔쥐: 맞아. 네가 알아도 넌 못 가는데? 하하하하

콩쥐: 어머니 저도 함께 갈 수 있게 해주세요.. 그동안 집 밖을 나가본 지가 너무 오래 되었어요..

새 어머니: 아니 너는 정신이 있는게야 없는게야?! 할 일이 산처럼 쌓여있는데!! 원님의 생일잔치에 가겠다고?!

콩쥐: 어머니.. 이번 한 번만 가게 해주세요..

새 어머니: 좋다. 그렇다면 저기 저 옆에 있는 독에 물을 가득 채우고, 또 좁쌀도 먹기 좋게 다 골라 놓고 오너라. 아 한가지 더, 베도 짜놓고 그것들만 한다면 내 허락을 하마.

콩쥐: 네 어머니... 빨리 해놓고 저도 곧 갈게요..

하지만 새 어머니가 얘기한 일들을 쉽지 않았습니니다. 독에 물을 열심히 부어도 독에 물은 차지 않고 시간은 곱절로 걸렸습니다. 그러자 갑자기 두꺼비가 나타났습니다. 두꺼비는 깨져있는 독을 자신의 몸으로 막아주었습니다. 그리하여 독에 물을 다 채울 수 있었습니다. 다음에는 참새가 나타나 좁쌀을 고르는 일을 도와주고 베를 짜는 일은 하늘에서 선녀가 나타나 도와주었습니다. 그리고 선녀는 콩쥐에게 예쁜 옷과 꽃신을 주고 돌아갔습니다.

선녀가 주고 간 그 예쁜 옷을 입고 꽃신도 신고 콩쥐는 원님의 생일잔치를 보러
걸어가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콩쥐가 시냇가를 걷고 있을 때 그만 꽃신 한 짝을
빠뜨리고 말았습니다.

콩쥐: 아..아니... 내 꽃신... 어찌지...

그 때 원님이 행차하다가 콩쥐가 시냇가에 빠뜨린 예쁜 꽃신을 보고 그의 하인에게 꽃
신의 주인을 찾아주라고 얘기했습니다. 하인은 마을의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그 꽃신의
주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. 몇 일이 지나도록 그 신의 주인을 찾지 못하고 원님과
하인은 마지막으로 콩쥐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.

하인: 계시오~~~ 잠깐 다들 나와보시오~~

새 어머니: 아니, 무슨 일이오???

하인: 나는 원님과 함께 이 꽃 신의 주인을 찾으러 왔소.

이 집에 이 꽃신을 신을만한 사람이 있소?

새 어머니: 있지 그럼. 팔쥐야~~~

팔쥐: 네 어머니. 부르셨어요?

새 어머니: 원님께서 이 꽃신의 주인을 찾고 계신다고 하구나. 네가 한 번 신어 보거라.

팔쥐: 어머니.. 제 발에 너무 작아요..

원님: 허허... 도대체 이 신의 주인이 누구인고...

콩쥐: 내가 한 번 신어보겠소..

그 때, 콩쥐는 그 꽃신이 자신의 것임을 확신하고 용기를 내어, 자기가 꽃 신을 신어 보겠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. 콩쥐가 꽃신을 신자 신기하게도 콩쥐의 발에 꼭 맞았습니다. 콩쥐는 미소를 지으며 꽃신을 찾은것을 기뻐했습니다. 팡쥐는 꽃신이 발에 맞지 않을 것을 아쉬워하며 울기 시작했고, 원님은 콩쥐의 아름다운 미모와 마음씨에 반하여 둘을 결혼을 하여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.

△ 단어를 알아봅시다!

여의다 (have someone die)	효심 (filial affection)	심술쟁이 (perverse person)	심술(을) 부리다 (behave perversely)	
과부 (widow)	밭(을) 메다 (crop a field)	가혹한 (harsh, severe)	마실(을) 다니다 (hang out for fun)	
치마 저고리 (skirt and jacket)	바느질 (sewing)	계모 (stepmother)	생일잔치 (birthday party)	독 (pot)
좁쌀 (hulled millet)	베를 짜다 (weave)	두꺼비 (toad)	곱절 (double, twice)	시냇가 (stream)
하인 (servant)	빠뜨리다 (drop, let fall into~)			

△ 생각해 봅시다!

1. 콩쥐는 왜 힘든 일을 해야했을까요?
2. 독에 물을 빠지는 일, 좁쌀을 고르는 일, 베를 짜는 일은 누가 도와주었나요?
3. 콩쥐의 새 어머니와 팡쥐는 어떤 사람인가요?
4. 원님과 하인은 왜 콩쥐의 집으로 찾아왔을까요?